

建築의 教育問題

〈建築学科와 建築工学科를 中心으로〉

尹道根

弘益大学校 理工大学 建築工学科長

우리나라 大學의 建築教育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러 全國 22個大學等에 建築科가 設置되어 그 外形的인 發展과 多數의 建築人을 排出하면서 建築科의 成長과 數的 팽창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建築의 規定이나 科의 內容 및 性格마저 파악하고 있지 않는 時點에 놓여 있는 것은 着過할 수 없는 問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事實은 建築을 專攻하는 立場에 있는 建築人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했을 것이며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即, 우리나라 大學에서는 工學部, 理工學部, 美術學部, 工藝學部, 等의 學部和 工科大学, 理工大学, 美術大學 等의 大學에 建築科가 所屬되어 있고, 또 그 名稱에 있어서도 多樣하게 表現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建築科 建築學科(建築意匠科) 建築美術科, 建築工藝科, 建築工學科 等으로서 各科에 對한 性格과 內容을 어떻게 区分하며 定義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 工科大学內에 建築工学科와 建築學科가 각기 所屬되어 兩立하고 있는 事實이다. 우리나라의 建築教育과 卒業后의 社會的 建築活動으로 볼때 과연 建築學科와 建築工学科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어떻게 區別하고 選擇해야 할 것인지 每年 大學을 지망하는 新入生으로서서는 어리둥절 할 것은 틀림없다.

結局 두科는 똑같이 建築을 專攻하는 科이며 工學士의 卒業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教育內容面으로는 어떻게 区分하며 할당해야 하는 것인지 아리송 할 뿐이다.

그리고 美術大學에 所屬하고 있는 建築美術科와 建築工藝科는 結果的으로 美術學士이며 이로 인한 建築活動의 制度的 問題(우리나라 現實의 建築士 免許取得의 國家考試制)에 適應되지 못할때 卒業後 社會 進出은

別途의 解決策(建築士의 無免許者로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建築美術科는 建築家(Architect)를 양성하는 本然의 科로서, 앞으로 問題가 될 것은 틀림없다. 실내장식만으로 국한시킬 수는 더욱 없다.

어떻든 이러한 問題들로 하여금 建築界와 學界는 한때 큰 話題가 되었을 뿐더러 우리나라 建築教育의 方向感覺마저 모호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建築」 建築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은 各國에 따라서 또는 時代的 배경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한 問題들로 볼때 아직까지 어떠한 확고한 建築教育의 方向과 建築科에 對한 正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國語大辭典을 펼쳐보면 『「建築」 흙, 나무, 돌, 쇠 등을 使用해서 집이나, 城이나, 다리 같은 建造物을 세워지음』라고 되어 있고, 「建築科」란 「建築學에 關한 理論과 應用을 研究하는 科目」 「建築工學科」란 「建築學의 한 部門으로 構造, 計劃, 材料, 施工法 등에 對한 學門」이라고 되어 있다.

世界百科大事典에서는 『「建築」 一般으로 木, 石, 시멘트, 鋼, 유리와 같은 材料를 使用하여 自然의 속에서 功利的인, 또한 象徴的인 空間을 土地에 固着하여 設定된 構造物을 建築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概定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功利的 空間으로서의 建築」 「象徴的 空間으로서의 建築」으로 分類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建築은 科學的要素와 藝術的要素를 포함하고 있는 即, 科學과 藝術의 中間的인 存在로서 藝術과 技術 또는 技術的 藝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建築은 社會, 經濟(City Planning), 藝術(Architect), 工學(Engineer) 등의 三角的面으로 이루어진 人爲的要素와, 環境條件에 依한 自然的要素로서 規定하고 있다.

建築의 教育을 가장 合理的인 體制라고 主唱한 Bauhaus의 藝術的인 教育機構와 運營方法을 따르다면 時代的 動向이나 先進諸國의 例로 보아 獨立된 하나의 Section으로서 建築大學 내지는 建築學部에 所屬되어 建築學科(Architect)와 建築工學科(Engineer)를 設置해야 할 것이다.

Architect는 空間을 創造하는 造型藝術로서 어느 分野와도 關聯되지 않는것이 없는 綜合藝術로서 등장시켜야 하고, 工學的 및 科學的 側面으로는 建築工學科로서 Engineer를 양성해야 하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와같이 建築學科나 建築工學科는 다른것으로 區別하여 분리되는 方向으로 그 改編은 當然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